

# 『유식이십론』 ‘유식무경’의 인지과학적 해명

정현주

전남대학교,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playhue@gmail.com

I. 들어가며

II. 외경실재론과 유식의 언명

III. 스페리의 시지가 연구와 마뚜라나의 해명

IV. 유식의 인지과학적 해명

V. 결어

## 요약문

본 연구는 『유식이십론』(*Vimsatikā*)의 유식(*viññapti-mātra*)의 주장을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다. 유식의 주장은 외경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서양 관념론의 하나인 것처럼 또는 외부의 실재를 반대하는 비합리적인 사상인 것처럼 이해된다. 이 시도는 유식사상에 대한 오래된 평가와 그 근거에 대한 반박이며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인지과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먼저 『유식이십론』에서 장소와 시간의 결정, 심상속의 비결정, 인과적 효과의 네 가지 주제[四事]에 대한 외경실재론자들의 비난과 이에 대한 세친의 문제의식과 유식의 주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경실재론자의 주장에 내포된 세계관이 로저 스페리의 화학친화력 가설(chemoaffinity hypothesis)에서 나타난 세계관과 동일하다는 것과 이 연구에 은폐된 이원적 세계관에 대한 마뚜라나의 해명을 검토한다. 마뚜라나의 해명을 통해 유식의 언명과 네 가지 주제[四事]에 대한 세친의 해명과 비문증(*taimira*) 비유가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인식작용(vijñapti)은 말해진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출현하는 활동이다. 유식(vijñapti-mātra)의 唯(mātra)는 오로지 외부 대상만을 차단하고, 동시에 인식작용이 오로지 공통의 역사를 통한 경험의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심리작용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유식무경의 논의는 ‘인식작용의 닫힌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문증의 비유는 우리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 지금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고, 대상의 인식에는 설명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유식의 주장은 외부의 대상이든, 인식능력이든 간에, 지각된 경험 영역에서 그와 같이 특정하여 분별하는 활동을 떠나서는 그 진술의 대상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독립적 존재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 주제어

유식, 닫힌 체계, 유식이십론, 움베르토 마투라나, 로저 스페리의 개구리 실험, 비문증의 비유, 지각과 환각의 구분불가능성, 관찰자의 존재론, 이원론

##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 *Vimśatikā*)의 ‘유식’(唯識, vijñapti-mātra)<sup>1)</sup>의 주장을 인식의 ‘닫힌 체계’(closed systems)<sup>2)</sup>라는 인지과학적 관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다. 유식의 주장은 외경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서양 관념론(Idealism)의 하나인 것처럼 또는 외부의 실재를 반대하는 비합리적인 사상인 것처럼 이해된다.<sup>3)</sup> 이 시도는 유식사상에 대한 기존 평가와 그 근거에

1) 여기서는 vijñapti을 “인식작용”으로 풀이하는 효도 가즈오(兵藤一夫)의 역어를 차용한다. 효도 가즈오, 『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다』, 김명우 외 역(서울: 예문서원, 2011), p.83. 각주 22 참조.

2) 닫힌 체계(closed systems): 한 별의 완전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단위체 내에서 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자가 구별할 때마다, 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 중 하나에 영향을 줄 때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영향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닫힌 역학 체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복합단위체의 구성방법은 닫힌 체계조직을 구성한다. X. D. Yáñez and H. R. Maturana, “Systemic and meta-systemic laws”, *Interactions*, Vol.20 No.3(New York, NY: ACM Publications, 2013), p.77.

3) 『유식이십론』을 관념론으로 읽는 최근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B. Kellner and J. Taber. “Studies in Yogācāra-Vijñānavāda idealism I: The interpretation of Vasubandhu’s Vimśikā”, *Asiatische Studien-Études Asiatiques*, Vol.68 No.3(Bern: Verlag Peter Lang, 2014), pp.709-756 참조.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며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인지과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먼저 장소와 시간의 결정과 심상속(心相續, *saṃtāna*)의 비결정과 인과적 효과의 네 가지 주제[四事]에 대한 외경실재론자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세친(世親, *Vasubandhu*)의 문제의식과 주장을 살펴본다. 외경실재론자들의 주장에 내포된 세계관이 스페리(R. W. Sperry)의 시지각 연구와 그 가설<sup>4)</sup>에 드러난 세계관과 동일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이원적 세계관에 대한 마투라나(H. Maturana)<sup>5)</sup>의 분석을 통해 유식의 언명과 네 가지 주제[四事]에 대한 세친의 해명과 비문증(飛蚊症, *taimira*)<sup>6)</sup> 비유에 따르는 함의를 검토 및 정의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유식이십론』에서 제시되는 유식의 중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식작용에 의해서만 사물을 눈앞에 꺼내놓는 ‘인식작용의 폐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경생물학자로서 마투라나의 모든 주장의 토대

- 
- 4) 로저 스페리는 개구리의 시신경을 절단해 180도 돌려서 두 눈에 연결했다. 몇 주 후, 시신경성유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양서류의 뇌에서는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부분인 시각덮개 쪽을 향해 사라난 것이 확인된다. 먹이인 파리를 가지고 개구리의 시지각을 시험하자, 시각 활동이 180도 반대로 뒤집혔음이 드러났다. R. W. Sperry, “Effect of 180 Degree Rotation of the Retinal Field on Visuomotor Coordin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Vol.92 No.3(Hoboken, NJ: Wiley-Blackwell, 1943), pp.263-279. 개구리 등의 시신경을 180도 회전시키는 실험은 스페리 외에도 1940년대에 신경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진 것이었다. 시각신경의 재생성에 관한 이 고전적 실험은 후에 망막지도에 대한 스페리의 화학친화력 가설(Chemoaffinity hypothesis)의 기초가 된다. 스페리의 가설은 증명되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nald L. Meyer, “Roger Sperry and his chemoaffinity hypothesis”, *Neuropsychologia*, Vol.36 No.10(Amsterdam: Elsevier, 1998), pp.957-980.
  - 5) 마투라나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다. 그는 제자이자 동료인 바렐라(F. J. Varela)와 함께 자기생성(Autopoiesis)의 개념을 창안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비둘기의 망막 현상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현상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살아 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이것을 자기생성(autopoiesis) 이론으로 정립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살아 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지 과정은 세계에 대한 지각에 어떻게 관련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 그의 사상은 그 함축에 있어 매우 철학적이지만 강력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는다. M. Ramage and K. Shipp, “Humberto Maturana”, In: *Systems Thinkers*(London: Springer, 2009), pp 199-207 참조. 자기생성 이론은 현재 신경 현상학, 구성주의, 사이버네틱스, 인지과학, 몸의 철학, 시스템이론, 복잡계, 뇌과학, 어포던스(Affordance)이론, 생태학적 심리학, 내부관측이론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득재 외, 『오토포이에시스와 통섭』(서울: 씨네스트, 2010), pp.6-8 참조.
  - 6) 예안(翳眼, *taimira*)을 비문증(*muscae volitantes*)으로 소개한 학자는 대만의 석혜민이다. 釋惠敏, 『『聲聞地』における所縁の研究』(東京: インド学仏教学叢書, 1994); 눈병의 비유는 『해심밀경』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 김성옥, 『“kesa: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 비유에 관한 고찰』, 『인도철학』Vol.29(서울: 인도철학회, 2010), pp.329-350 참조.

는 모든 살아있는 체계에 있어 신경계 작동의 폐쇄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경계 활동이 외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작동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닫힌 체계의 특성은 인간 특유의 ‘언어를 포함하는 인식작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간 인식의 닫힌 체계는 경험의 순간에는 우리가 지각과 환각을 그 자체로 구별할 수 없다는 조건을 함축한다. 인간의 언어적 인식작용의 닫힌 체계라는 그의 정의는 유식의 종지를 재확인시킨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유식이십론』의 유식은 독립적 대상세계가 오로지 분별하는 인식작용에 불과할 뿐, 이것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체의 세계는 공유된 차원의 언어적 분별에 의해 불러 일으켜진 심리적 공간이 작동적으로 실재의 세계를 눈앞에 꺼내놓는 것이다. 비문증의 비유는 우리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 눈앞의 대상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고, 그 대상의 인식활동에 설명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와 같은 분석과 함축은 극미를 포함하는 외부의 실재든, 이에 대한 인식능력으로서의 자기 마음이든 진술되는 대상이 지각된 경험 영역에서의 특정하는 분별활동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독립적 존재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재확인시킨다.

## II. 외경실재론과 유식의 언명

### 1. 『유식이십론』의 외경실재론

『유식이십론』을 독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외경을 부정하는 세친의 언명에 동의하기보다는 외경실재론자들의 반박과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설득력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외경의 부정이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혼란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구성하는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와 나를 어떻게 간주하는지 검토해보자. 대상에 대한 모든 설명은, 대상이 기술하기 활동의 외부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경험이 기술되는 것이다. 이때 관찰자의 지각은 ‘외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통해 그 실재를 파악하는 작동’을 전제한다. 이것은 우리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나는 ~을 본다’, ‘나는 ~을 듣는다’ 등으로 말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통해 객체에 대한 경험을 기술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와 이것을 말하는 나 사이 차이가 원래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것처럼 느낀다. 그에 따라 마치 분별된 대상과 지각하는 내가 상호 독립된 것처럼, 그리고 대상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 없이 저 외부의 세계에 몰입해 살아간다. 구별된 세계를 실재로 파악하는 이 세계관은 마음과 몸, 자아와 세계, 주체와 객체와 같은 서로 독립적인 본질에 기반을 두며, 우리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상적 경험을 세계와 내가 분리된 것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외경실재론자들의 질문도 일상적 경험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대상에 의해서 네 가지 주제[四事], 곧 장소[處]·시간[時]·상속[相續]·작용[作用]이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만약 외경이 부정된다면 네 가지 주제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묻는다.<sup>7)</sup>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 인식은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인식과 작용이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들은 세친의 주장처럼 외경이 환영이나 꿈이라면 대상의 실제적 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앞의 주제를 분석해보자. 대론자는 처음과 두 번째 주제에서, 대상이 고유한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므로 특수한 인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의 고유한 장소와 시간에 의해서라고 말한다. 외부의 사물이 점유하는 공간과 변화과정의

7) Viṃś. p.3. na deśa-kāla-niyamaḥ santānā-aniyamo na ca/ na ca kṛtyakriyā yuktā vijñaptir yadi nārthataḥ/[2] 만약 식이 대상을 갖지 않는다면, 장소와 시간의 결정, [특정한] 심상속에 한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인과적 효과를 이루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2송)

8) 이지수, 『인도 불교철학의 원전적 연구』(서울: 여래, 2014), p.225 참조.

구성속성인 시간이 대상의 실재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거론된다.<sup>9)</sup> 세 번째 주제는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외부의 대상을 보면 동일한 인식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up>10)</sup> 즉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비문증과 같이 환각을 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볼 경우에는 색(色)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가능한데, 이는 외부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대상에 의한 보편인식이 확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문증 환자의 터럭이나 이중의 달이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제에서 환각과 꿈은 작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환각이 지각과는 다르다고 말한다.<sup>11)</sup>

대론자에게 실재는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장소와 시간 같은 어떤 속성의 상태, 혹은 보편적이고 단일한 실체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대상에 의해서 인식과 개념적 구별의 작용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각은 꿈이나 환각과는 다르다. 면밀히 검토하면 실재론자들은 대상을 지시의 준거점으로 삼아 공간이나 시간 등과 같은 속성을 외부의 보편 실체처럼 설명하고, 다시 이것에 근

- 
- 9) Viṃś. p.3. kim uktaṃ bhavati / ① yadi vinā rūpādy-arthena rūpādi-vijñaptir utpayate na rūpādy-arthāḥ / kasmāt kvacid deśa utpayate na sarvatra / ② tatraiva ca deśe kadācid utpayate na sarvadā / 무엇이 여기에서 설명되는가? ① 만약 색형(色形) 등의 외부 대상 없이도 색형 등의 인식작용[rūpādi-vijñaptir]의 발생이 있고 색형 등의 외부 대상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특정하게] 있는 장소에서만 [색형 등의 인식작용이] 발생하지, 일체의 장소에서 [색형 등의 인식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② 왜, 그 장소에서만, [특정한] 어느 때에만 발생하지, 일체의 때에 있는 것은 아닌가?
- 10) Viṃś. p.3. ③ tad-deśa-kāla pratishṭhitanām sarveṣāṃ saṃtāna utpayate na kevalam ekasya / yathā taimirikānām saṃtāne keśādy-ābhāso nānyeṣām / ③ 왜 그 장소와 시간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의 심상속(saṃtāna)에서 발생하고, 오직 한 사람의 [심상속에]서는 [발생하지] 않는가? 비유하자면, 비문증이 있는 사람들의 심상속에 터럭 등의 현현이 있지만, [비문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심상속에]는 [터럭 등의 현현이] 없다.
- 11) Viṃś. p.3. ④ kasmād yat-taimirikaiḥ keśādi-kriyā na kriyate na ca tad-anyair na kriyate/ yad-anna-pāna-vastra-viṣāyudhādi svapne dṛṣyate tenānādi kriyā na kriyate na ca tad-anyair na kriyate/ gandharva-nagareṇāsattvān nagara-kriyā na kriyate na ca tad-anyair na kriyate/ yasmād asad abhāvābhāsane deśakāla-niyamaḥ saṃtāna-aniyamaḥ kṛtyakriyā ca na yujyate/ ④ 왜 비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터럭·벌레 등은 터럭 등의 인과적 효과가 없지만, 반면에 [비문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터럭·벌레 등] 다른 경우는 [인과적 효과를] 갖는가? 꿈속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음료수·의복·독·무기 등은 배고픔, 갈증 등에는 인과적 효과가 없지만, 반면에 [꿈이 아닌] 다른 것은 그와 같은 [인과적 효과를] 갖는다. 건달바성(乾達婆城)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의 인과적 효과를 갖지 않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 [인과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외부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장소와 시간의 결정과 심상속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인과적 효과를 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거해 인식이 공간 등의 정보나 사실 그 자체를 단순히 주입하면 되는 ‘열린 체계’처럼 말한다. 여기에서 지각은 그 대상이 결정하는 것이며, 지시 대상이 없다면 환각이다. 이런 구분 속에서 인식이나 지각능력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질문되지도 않는다.

실재론적 관점은 현대적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극미설(極微說)은 소립자로 간주되는 쿼크(quark)나 렙톤(lepton)과 유사하다. 『유식이십론』에서 소개되는 극미[paramāṇu]는 물질[色]의 최소단위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극한의 미립자를 의미한다. 극미는 외연성이나 부피, 형·색을 갖지 않으므로 무방분(無方分)으로 말해진다.<sup>12)</sup> 소립자는 양자이론에서 부피와 구조를 갖지 않으면서 공간상의 한 점에 존재할 수 있는 점 입자(point particle)로 정의된다.<sup>13)</sup> 극미설이나 양자설과 같이 실재론에 기반을 둔 이론들은 외부의 실재가 그 자체로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립자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이것은 미립자에 대한 설명과는 별개로 미립자가 외부에 대한 ‘표상’과 같은 형태로 지각체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축한다. 이와는 다르게 칸트(I. Kant)의 경우처럼 이성과 같은 판단능력을 통해 보편적 지각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보편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능력 외부의 어떤 신적 관점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가정과 관념들은 다시 독립적 대상과 지각/인식능력이라는 이원적 전제를 재반영한다.

예컨대 낱말 pratibhāsa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스민 이 조건을 살필 수 있다. 현장(玄奘)은 이 낱말을 사경상(似境相)으로 풀이한다. 이것은 ‘모습’ ‘유사’라는 의미지만 ‘환각’이라는 뜻도 있다.<sup>14)</sup> 제21송의 허위의 사현(vitatha-pratibhāsa)이라는 표현에서 pratibhāsa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5)</sup> 사경상(似境相)

12) 제11-15계송이 극미론을 다룬다. 극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규완, 『세친의 극미론』(서울: 씨아이알, 2018).

13) 윤영호, 『불교의 원자설』(서울: 씨아이알, 2015), p.7. pp.274-275 참조.

14) <http://sanskritdictionary.com/>참조.

15) pratibhāsa에 대한 자세한 어원적 정의는 요코야마의 설명을 참조하라. 요코야마 고이츠, 『유식철학』, 묘주 역(서울: 경서원, 1989), p.29 참조.

을 ‘대상의 모습처럼 사현하는 것’ 또는 ‘대상의 모습과 유사한 것’ 등과 같이 번역할 때, 이 내용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모습의 ‘원본’ 대상이 외부에 따로 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휘가 조건적으로 대상과 지각이 독립적 실체로 있다는 이원적 전제를 언제나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실재론자들이다. 『유식이십론』에서 우리가 겪는 이해의 어려움은 이런 조건에서 유래한다.

세친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이원적 구별에 길들여져 있는 이 ‘인식’이다. 인식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인식조건에 의지해서만 인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이해는 언어적이다. 인식을 결박하는 모든 관념은 이원적 체계를 반영하며, 우리 이해는 무의식적으로 이 인식조건에 좌우된다. 우리에게 내재된 모든 관념은, 인식현상을 외부세계가 차단된 하나의 닫힌 체계로 서술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 자체로 무효화시킨다. 우리에게 내재화된 인식조건을 관찰하면서 이제 유식에 대한 세친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 2. 유식과 비문증의 비유

『유식이십론』의 도입문은 “유식(唯識)”을 확립하기 위해 『화엄경』 「십지품」을 교증으로, 인식작용에 상관없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실제적 색(rūpa) 등이 있다는 상식적 생각을 문제 삼는다.

경전 [『화엄경』 「십지품」]에 “승자의 자식들이여, 실로 삼계는 유심(唯心)이다”라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심(citta)과 의(manas)와 식(vijñāna)과 요별(vijñapti)은 동의어다. “심”은, 이 [『십지품』]에서는 상응(samprayoga) [법인 심소(心所)]을 지닌 것으로 의도되고 있으며, “唯”라는 것은 [심과는 별도의 외계 등의]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sup>16)</sup>

16) Vimś. p.3. cittamātram bho jīnaputrā yad traidhātukam iti sūtrāt/ cittam mano vijñānam vijñaptis ceti paryāyāh/ cittam atra saśamprayogam abhipretam/ mātra ity artha pratiseḍdhārthām/



심(citta)은 인식작용과 동의어로 소개된다. 심이 어떤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면 심리작용은 감수작용[受]이나 연상작용[想] 등의 개개인의 고유한 작용[行]을 수반하는 것이다. 심과 심리작용은 일어나는 시기와 근(根), 대상(所緣) 등을 같이한다.<sup>17)</sup>

삼계(traidhātu)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마치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사현(似顯)되는 세 종류의 세계<sup>18)</sup>를 의미한다. 예컨대 논서의 농화와 극미, 타심지 등과 같은 대상이 삼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농화 등으로 설명된 대상은 인식작용을 제한하면서 대상이 사현하도록 심리적 공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심과 심리작용은 지각기관(根)이나 인식대상[所緣] 등을 같이 하여 삼계를 꺼내놓는다. 즉 인식작용은 언어적 진술을 포함한다. 인식작용에 상응하는 것이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심리작용이므로 다만 심리작용은 ‘있다’고 말해진다.

날말 唯(mātra)는 외계 대상만을 차단하면서도 언어적 진술을 포함하는 인식작용의 방식이 전적으로 심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작용과 상응한다는 것을 밝힌다. 유식무경은 인식작용에 의해서만 대상이 망상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언어적으로 작동하는 단힌 체계라는 점을 드러낸다.

제1계승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현현으로서 삼계 유식에 대한 이증을 전개한다. 꿈, 이중의 달, 환술 등의 비유로도 말해지는 비문증의 예시는 유식의 종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삼계]는 다만 유식이다.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현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문증(taimira)이 있는 자가 실재하지 않는 터럭과 [이중의]

17) 다케무라 마키오, 『유식의 구조』, 정승석 역(서울: 민족사, 1989), p.104 참조.

18) 삼계(三界, tridhātu)는 찰나찰나 생과 사를 유전(流轉)하는 3가지 세계, 즉 욕계(慾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말한다. 욕계는 가치판단으로 본 세계이고, 색계는 가치판단을 제거하고 본 형색만의 세계이며 무색계는 그 형색도 없는 세계로서 식만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삼계는 특히 색계 4선정과 무색계 4무색정 등의 수행도와 연결해 고려해야 한다. 유식의 관점에서 삼계는 인식작용을 통해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만들어내는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세계가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도를 윤회하는 생사의 세계는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쿠마 히데노리, 「유가행 유식사상이란 무엇인가」, 『유식과 유가행』, 김성철 역(서울: 씨아이알, 2014), p.55 참조.

달 등을 보는 것과 같다.(제1계송)<sup>19)</sup>

인간의 인식활동은 언어를 구사하는 분별활동과 함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주위 상황과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이때 우리의 말과 의식, 사고, 분별은 언어적이다. 예컨대 우리가 ‘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에 대한 지시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관계를 상정해야 한다. 우리는 돌이 “단단하다”, “작다”, “무겁다”, “조밀하다”, “구르고 있다”, “눈에 보인다”, “먹을 수 없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일반적 경우와 다르게 과학이나 인식론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밀한 화법이 필요하다. “돌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찢러도 표면이 그대로 있고 둘째로 돌 분자들 사이의 연결 방식이 단단하다는 의미다. “돌은 단단하다”라는 명시적 진술은 돌을 찢러도 그 표면에 변화가 없다는 경험으로 설명된다. 이 경험은 다시 설명해야 할 하나의 현상이 되어, “돌의 미세입자들 간의 연결방식이 단단하다”라고 다시 풀이된다. 돌의 미세입자에 대해서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끌어들이어 해명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해명에 의지해서 돌이나 그 입자는 외부에 있는 실재의 양상으로 간주되며, 설명과 함께 실재하지 않는 가설적 대상이 출현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돌과 그 원자상태가 우리 인식에 그 자체로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것은 극미(極微, paramāṇu)를 주장하는 외경실재론자의 견해와 유사하다. 원자는 돌의 관찰된 상태를 그 속성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창조된 것이고 과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얇이다. 과학자들마저도 자신의 설명이나 가설을 돌의 상태와 유사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돌의 원자가 마치 외부에 존재하

---

19) Viṃś. p.3. vijñapti-mātram evaitad / asad-arthāvabhāsanāt / yathā taimirikasyāsat-keśa-candrādi-darśanam // [1]

20) G. 베이트슨, 『정신과 자연』, 박지동 역(서울: 까치, 1990), pp.80-81 참조.

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누군가가 돌의 원자 상태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또는 원자상태와 돌에 반드시 설명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세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주위 상황과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식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어진 인식의 조건을 여실히 보지 못한다. 이 분별의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이원적 세계관은 모든 대상의 지시관계 아래에 은폐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가 비문증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머리카락이라거나 이중의 달과 같다는 비유는 가설로서의 실재를 거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맹점을 함의한다. 외경 실재론자의 질문에 직면한 세친의 문제의식은 이 비문증의 비유에서 분명해진다.

### III. 스페리의 시지각 연구와 마뚜라나의 해명

#### 1. 은폐된 이원론적 세계관

1940년대의 개구리 눈의 시신경 회전을 통한 시지각 연구에서<sup>21)</sup> 스페리 등은 개구리의 한쪽 눈을 빼내 시신경을 절단하고, 눈을 180도 회전시킨 다음, 회전된 눈에 시신경을 연결하여 다시 집어넣었다. 시신경이 180도로 회전된 개구리는 외부의 먹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정확히 혀를 먹이와 180도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뺐었다.<sup>22)</sup>

실험에서 스페리는 시신경이 회전된 개구리의 인지가 주변의 먹이를 파악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끝내는 시신경의 적응을 통해 능력을 회복하여, 반대

---

21) Sperry, "Effect of 180 Degree Rotation of the Retinal Field on Visuomotor Coordination", pp.263-279. 참조; L. S. Stone, N. T. Ussher and D. N. Beers, "Reimplantation and transplantation of larval eyes in the salamander(Amblystoma punctatum)",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Vol.77 No.1(Hoboken, NJ: Wiley-Blackwell, 1943), pp.13-48.

22) 실험과정 및 도판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라. Sperry, "Effect of 180 Degree Rotation of the Retinal Field on Visuomotor Coordination", pp.263-279; Meyer, "Roger Sperry and his chemoaffinity hypothesis", pp.957-980.

방향으로 혀를 뺀 ‘잘못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했다. 오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먹이 반대 방향으로 혀를 뺀 ‘잘못’을 반복했고, 누군가 먹이를 직접 먹여주기 전까지는 벌레를 잡지도 못했고, 먹이를 겨냥하는 법을 다시 배우지도 못했다.<sup>23)</sup> 실험에서 그의 가설은 검증되지 못한 셈이다.

마뚜라나는 스페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험에서 관찰된 사실은 ‘개구리’가 ‘자기 망막에 맺힌 상’을 향해 혀를 뺀다는 것이다. 스페리는 이것을 ‘개구리’가 혀로 ‘외부 세계의 벌레’를 겨냥한다고 기술한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개구리가 외부의 먹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혀를 뺀고 있으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개구리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진술하고 생존을 위해서 개구리의 행위 자체가 교정되는가를 질문한다. 그의 논의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구리’가 혀로 ‘외부 세계의 벌레’를 겨냥한다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체계를 다시 검토해보자.

엄밀히 따져보면 개구리의 ‘인식능력’과 외부 세계의 벌레라는 ‘대상’의 이원적 관계가 상정된다. 이원적 구분은 대상(벌레)의 모양과 위치가 하나의 정보 형태로 개구리의 두뇌 속에 입력되고 그 인식능력(주체)이 그 정보를 포착해서 처리한다는 기술체계에 드러난다. 여기에서 인식능력과 대상은 서로가 열린 관계로 설정된다.

이 관계의 구조는 낱말 ‘지각’(perception)에도 함축되어 있다. perception은 라틴어, ‘per capire’에 기원을 갖는 낱말이며, 1차적으로 ‘포착을 통한’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지각이 독립적인 세계의 속성을 포착하는 것이며, 이 세계가 속성을 구별하는 사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배경적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지각이라는 낱말은 관찰자의 구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 영역’에 대한 명백한 표시이거나 함축적 의미를 수반한다.<sup>24)</sup> 지각의 설명에 사용되

---

23) 움베르토 마뚜라나·베른하르트 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서창현 역(서울: 갈무리, 2006), pp.87-91 참조.

는 모든 관념들은 그 자체로 이원적 구분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설명은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세계와 지각의 구분을 재반영한다.<sup>25)</sup>

관념의 이원적 체계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기반을 둔다. 예컨대, 우리는 자신이 있는 방의 탁자나 책 등을 의심의 여지없이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외부의 주어진 상황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바로 우리 관찰이 자신을 포함한 사물들을 외관상 독립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을 때 이 말이 이해가 간다거나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이원적 구분의 경험적 전제가 무엇이 타당한지의 판단 준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sup>26)</sup>

스페리의 연구에는 지각과 외부 세계, 또는 주체와 객체, 인식능력과 세계라는 분리된 구조가 은폐된 형태로 스며있다. 그의 연구에 사실로서 반영되는 것은 이원적 구분이다. ‘신경계’(개구리)는 유기체의 행동을 산출하기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정보’(먹이)를 획득하는 것이거나, 신경계의 감지기를 통해 ‘외부 환경의 속성’들을 추상화하도록 설계된 체계로 간주된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수용되며, 인지와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필요해 보인다. 스페리의 전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체계가기 때문이다.<sup>27)</sup> 마투라나가 스페리의 실험을 통해 만난 것은 모든 존재에 스며있는 세계와 인식능력의 이원론(dualism)적 세계관이다.

---

24) H. Maturana, “Ontology of Observing: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self consciousness and the physical domain of existence”, *Conference workbook: Texts in Cybernetics*, Vol.1(Felton, CA: American Society for Cybernetics Conference, 1988), p.8 참조.

25) H. R. Maturana and J. Mpodosis, “Perception: behavioral configuration of the object”,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Vol.20 No.3-4(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87): p.319 참조.

26) 마투라나·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44-49쪽 참조.

27) H. Maturana, “What is it to see?”,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Vol.16 No.3-4 (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83), pp.255-257 참조.

## 2. 마뚜라나의 닫힌 체계

### (1) 신경계의 자기준거적 역학

마뚜라나는 스페리의 실험 결과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스페리는 개구리의 신경계가 벌레라는 외부의 자극(정보)을 망막을 통해 수용한다고 이해하고 그와 같이 진술한다. 마뚜라나의 해석에 따르면, 개구리의 혀는 외부의 먹이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시신경이 지각하는 방향, 즉 ‘망막에 상이 맺히는 방향’을 향해서만 뻗는다. 즉 개구리 신경계의 연속적 활동은 망막의 일정 부분이 활동하는 것과 연관된다. 내적 인지 체계에서 벌레의 영상이 현현하는 경우, 개구리는 벌레의 영상이 현현하는 곳을 겨누고 혀를 내뻗는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신경계 자체에 의해 결정된 활동이다. 마뚜라나는 개구리의 인지를 유기체 내부에서 자기준거적으로 내적 상호관계만을 발생시키는 신경계 활동으로 결론을 내린다.<sup>28)</sup>

그의 해석에서 외부의 벌레는 스페리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계의 작동 방식에 따르면 개구리에게 ‘외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 없다. 스페리에게 개구리가 외부에 있는 벌레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학습 오류이거나 잘못된 행동이지만, 개구리의 신경계 내에서는 학습 오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구리 신경계의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란 원리적으로 개구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스페리와 같은 외부의 관찰자에게만 가능하다. 학습 오류나 잘못된 행동, 지각과 환각 등의 구분은 다만 관찰자<sup>29)</sup>의 판단에 속하는 것

28) 마뚜라나·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pp.86-89 참조. 또한 개구리의 시신경 실험이 『삶의 나무』에 소개되어 있다. 마뚜라나·바렐라, 『삶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최호영 역(서울: 갈무리, 2007), pp.144-145 참조.

29) 마뚜라나는 생물학적 인지 개념과 함께 인식활동에서 수용자의 주관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관찰자’ 개념을 도입한다. 마뚜라나에게 ‘관찰자’란 낱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그것들이 마치 자신과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구별하는 사람이다. 즉 관찰이라는 낱말은 거리를 유지하는 어떤 분리를 함축하는데 관찰자가 어떤 객체를 그것을 말하는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하는 방식을 밝히기 위한 마뚜라나 고유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관찰자가 없이는 인식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재는 관찰자 없이 존재할 수도 없다. 마뚜라나·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pp.44-46 참조. 바렐라에게는 세계를 독립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관찰자라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을 참조하라. 프란시스코 바렐라 외, 『몸의 인지과학: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석봉래 역(서울: 김영사, 2013).

이다. 이 실험은 ‘외부의 벌레’와 같은 환경세계(매질)가 시신경이 180도 회전된 개구리의 내부 구조에서 결정된 변화를 일으키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과 살아있는 체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sup>30)</sup>

마투라나의 해석은 이중적인 함축을 드러낸다. (1) 살아있는 체계는 그 내적 역학에서 인지적으로 닫힌 체계라는 점이다.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유기체의 변화란 신경계 내의 닫힌 역학에 따르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폐쇄성은 체계의 자율적 작동의 조건이고 내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 역학의 특징이다. 동시에 (2) 이 연구는 정상적인 개구리가 벌레를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개구리의 체계가 진화적으로 매질(medium)/환경세계에 완전히 적응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구리의 환경과의 긴밀한 적응관계는 살아있는 체계가 매질 역학과의 ‘구조적 일치(적응)’를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두 함축의 의미는 신경세포 연결망으로 작동하는 신경계의 활동에서 안과 밖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환각과 지각사이에는 어떠한 구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식활동이 신경계 작동에서 닫힌 연결망이기 때문이다.

## (2) 관찰자의 존재론

역설적이게도 스페리의 실험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개구리의 신경계를 기술하는 관찰자로서 스페리의 가설적인 이원적 존재론이다. ‘개구리’가 혀로 ‘외부 세계의 벌레’를 겨누다와 같은 이원적 기술은 서술자의 인지영역을 제한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술자의 인지영역이 외부의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시관계를 내어놓는 언어적 인식활동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망막에 맺힌 상과 내적 인지마저도, 외부의 대상과 상관없이 관찰자의 자기 구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닫힌 체계의 관점을 재차 고려

30) 마투라나·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pp.87-91 참조.

31) Maturana and Mpodozis, “Perception: behavioral configuration of the object”, pp.319-324 참조.

한다면, 언어는 물리적 존재영역의 존재론적 근거(ontological foundation)이다.<sup>32)</sup> 즉 대화에서의 언어적 활동에 상응하는 것은 물리적 존재영역으로 현현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마투라나는 1960년대의 색지각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현상으로서 관찰 활동이야말로, 개구리와 외부 벌레와 같은 대상(objects)과 물리적 존재영역과 관련하여 존재론적으로는 1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sup>33)</sup> 모든 관찰활동은 관찰자와 언어를 포함하며, 이것이 바로 언어 내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식적 조건이라고 그는 결론 내린다. 이러한 인식적 전환을 통해 그는 경험적 인식론(empirical epistemology)을 전개한다.<sup>34)</sup>

마투라나에게 있어 닫힌 체계의 작동은 신경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지시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5)</sup> 신경계의 작동을 꿈꾸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신경계는 우리가 사과를 맛볼 때와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볼 때와 꿈에서 사과를 맛볼 때의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체험의 순간에는 지각과 환각을 구별할 수 없다. 오로지 유기체의 안과 밖을 기술하는 관찰자에 의해서만 세 가지 경우가 구별된다.<sup>36)</sup>

마투라나는 과학적 주장들이 생물학적 현상으로서 인간 마음의 자유로운 창조물<sup>37)</sup>임을 드러낸다.<sup>38)</sup> 과학적 설명에서 실재는 대화의 과정에서 언어적

---

32) Maturana, "Ontology of Observing", p.3 참조.

33) 스페리의 실험 이후로 마투라나의 인식적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비둘기의 색 지각 연구에 의해서다. 다음을 참조하라. H. R. Maturana and S. Frenk, "Directional Movement and Horizontal Edge Detectors in the Pigeon Retina", *Science*, Vol.142 Issue3594(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63), pp.977-979.; H. R. Maturana, G. Uribe, and S. Frank, "A Biological Theory of Relativistic Colour Coding in the Primate Retina: A discussion of nervous system closure with reference to certain visual effects",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No.1(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68), pp.1-30.; H. R. Maturana, "Neurophysiology of cognition", ed. P. L. Garvin, *Cognition: A multiple view*(New York: Spartan Books, 1970), pp.3-23.

34) 마투라나·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p.91 참조.

35) H. Maturana,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virtual realit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uman existence", *Constructivist Foundations*, Vol.3 No.2(Austria: University of Vienna, 2008), p.113 참조.

36) Ibid., p.109 참조.



으로 상호 조율되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활동은 스스로의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타당성의 기준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상호 객관성의 심리적 공간을 형성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인식작용은 실재(reality)를 구성하는 원천이며, 경험적으로 공유된 지시관계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인간의 행위는 실체(entity)로 정립된다. 따라서 존재의 물리적 영역이란 관찰 활동의 존재론이 지닌 속성이며, 관찰자 경험에 대한 설명 안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sup>39)</sup> 시간이나 공간의 구별도 동일한 방식에서 발생한다.<sup>40)</sup>

이제 외경실재론자의 비난에 대한 세친의 해명을 살펴보자. 실재가 가상적이라는 마투라나의 해명은 세친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 IV. 유식의 인지과학적 해명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세친은 외경 없이도 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3가지 비유로 제시한다.<sup>41)</sup> 이것은 유식무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물의 ‘존재’를 구별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의 답변은 유식을 분명히 밝힌다.

---

37) 아인슈타인(A. Einstein) 또한 물리학이론이 인간 마음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저것들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되물었다. 또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물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비롯하는 전제고 이와 같은 전제 없이는 익숙한 의미의 물리학적 사고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분리가능성이라는 개념이다. A. Einstein, “Einstein on Locality and Separability”, trans. D. Howard,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16 No.3 (Amsterdam: Elsevier, 1985), pp.187-188 참조.

38) Maturana, “Ontology of Observing”, pp.4-7, 12-13 참조.

39) Ibid., p.9 참조.

40) 비 시간(Non-time): 구조적으로 결정된 체계로서, 살아있는 존재는 비 시간, 지속적인 구조변화의 현재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에서 각 현재의 새로운 순간은 살아진 것인 현재 순간의 변형으로서만 발생한다. 시간은 하나의 가상적 설명 개념이다. 이것은 관찰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사태들을 변화의 흐름 전후에 연결하기 위해 창조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시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에서 일어난다. Yáñez and Maturana, “Systemic and meta-systemic laws”, p.78.

41) Ibid., pp.102-106 참조.

왜냐하면 장소 등의 결정은 꿈과 같이 증명된다. (제3ab송)

[계송의] “꿈과 같이”란, 꿈속에서 [장소 등의 결정이 있]는 것과 같다.  
[외경실재론자가 묻는다.] 무엇보다, 어떻게 [증명되]는가?  
[세친이 답한다.] 꿈속에서는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만 있는 것의 [예를 들면], 벌·정원·여자·남자 등이 보이며, 모든 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때에는 보이지만, 언젠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대상이 없더라도, 장소와 시간의 결정은 증명된다.<sup>42)</sup>

장소와 시간을 한정하는 인식작용에 대해 세친은 여러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외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꿈과 같다고 설명한다.

마뚜라나에 따르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낱말을 일상생활에서 겪는 연속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의 추상을 가리키거나 함축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함축하는 경험적 설명원리일 뿐이다.<sup>43)</sup>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공간과 연속성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이 가설들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는 구별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entity)나 자연적 차원을 내포하지도 않고, 내포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아귀와 같이], 심상속이 한정되지 않는 것이(제3bc송)

증명된다는 [말이] 이어진다. “아귀와 같이”란, 아귀들의 [심상속이 한정되지 않]도록, 이다.

42) Viṃś. pp.3-4. deśādinīyaḥ siddhāḥ svapnavat/[3ab] svapnaiva svapnavat/ katham tāvat/ svapne vināpy-  
arthena kvacid va deśe kimcid bhramara-ārama-strī-puruṣādikaḥ dṛṣyate na sarvatra/ tatraiva ca deśe  
kadācid dṛṣyate na sarvakālam iti siddho vināpy arthena deśakāla-nīyaḥ/ pretavat punaḥ/samtāna-  
niyaḥ/[3bc] siddha iti vartate/ pretānam iva pretavat/ katham siddhāḥ samam/

43) H. R. Maturana, “The nature of time”, *Chilean School of Biology of Cognition*(Santiago: Instituto de  
Terapia Cognitiva, 1995), pp.1-5 참조.

[외경실재론자가 묻는다.] 어떻게 증명되는가?

[세친이 답한다.] 똑같이

모두 [아귀들]에 의해서, 농하(農河) 등을 볼 수 있어서다.(제3cd송)

고름으로 가득 찬 강이 “농하”이다. [버티로 가득 찬 병이] 버티병[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아귀들은 동일한 업이 이숙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그들 모두는 누구나 고름이 가득 찬 강을 보[고 “농하”라고 부르는] 것이지, 한 아귀만이 보는 것이 아니다. “등”이라고 하는 [날말의] 이해에 따라서 고름이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줌이나 오물 등으로 가득 찬 [강]이나, 몽둥이나 칼을 든 [감시하는] 남자들에게 지켜지는 [강]을 [보는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많은 識에 관해서, 대상이 실재하지 않아도, 심상속이 한정되지 않는 것이 증명된다.<sup>44)</sup>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함께 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인식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육취(六趣)의 하나인 아귀(pretā)의 업이 이숙한 사람에게는 강이 고름이 가득한 농하로 보이는 것과 같다. 아귀로 태어나는 한, 아귀에게는 농하를 구별하는 심상속이 있고, 이와 함께 공유된 업(業)의 이숙한 상태가 드러나 아귀가 고름으로 가득 찬 강을 ‘농하’라고 부른다.

이 계송의 논지는 대상 인식이 고유한 심상속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심상속이 의미하는 것은 공유된 업에 의해 이숙한 상태가 하나의 힘으로써 눈앞에 ‘농하’라는 대상을 현전시키는 활동이다. 어떤 문화에 속한 특정 경험방식을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공동의 행동방식[心相續], 즉 언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한정되는 고유한 행동방식을 갖게 된다. 농하는 문화적으로 구별된 용어의 유발을 따라

44) Viṃś. pp.3-4. sarvaiḥ pūyanadyādi darśane/[3bc'] pūya-pūrṇyā nadi pūyanadi/ grtaghaṭavat/ tulyakarma-vipākāvasthā hi pretāḥ sarve 'pi pūyapūrṇāṃ nadiṃ paśyanti naika eva/ yathā pūya-pūrṇām evaṃ mūtra-pūriṣādīpūrṇāṃ daṇḍasidharaiś ca pūruṣair-adhiṣṭhitam ityādi-grahaṇena/ evaṃ saṃtāna-aniyame vijñaptīnāmasaty apy arthe siddhaḥ/

서,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농하’로 구별하는 활동으로서만 그들 삶에 나타난다. 따라서 세친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존재가 언어를 구사하는 구별방식에 결박된 것이지, 구별하는 활동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sup>45)</sup>

인과적 효과를 이루는 것은 꿈에서 과오를 저지르는 것처럼 (제4ab송)

증명된다고 알려져야 한다. 예컨대, 꿈 중에 [실제로는] 두 사람의 교합 없이도 정액이 분출된다고 하는, 꿈에서 과오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선 각각 별도의 비유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의 결정 등의 네 가지 주제가 증명된다.<sup>46)</sup>

이 계송은 꿈의 비유를 통해 외재하는 대상 없이도 신체의 인과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작용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도 해명 가능하다. 우리가 사과를 맛볼 때와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볼 때와 꿈에서 사과를 맛볼 때와 같은 세 상황에서 신경계의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세 가지 상태의 차이에 대한 구별은 유기체의 안과 밖을 비교하는 관찰자의 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sup>47)</sup> 그러므로 신경계의 이 같은 작동은 꿈과 같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꿈마저도 꿈꿀 때와 깨어났을 때의 비교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의 관찰에 의해서 그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인식조건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몰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하고자 할 때, 대상에 대한 기술의 한계를 측정하고 판단할 준거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는다. 제17계송에서 꿈과 인식이 외부 대상에 의해서 구별 가능하다는 외경 실재

45) Maturana,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virtual realit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uman existence”, p.112 참조.

46) *Vimś.* pp.3-4. svapnopaghātavat kṛtyakriya/[4ab] siddheti veditavyam/ yathā svapne dvayasamāpattim-antareṇa śukra-visargalakṣaṇaḥ svapnopaghataḥ/

47) Maturana,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virtual realit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uman existence”, p.109 참조.

론자의 힐난도 이러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다.

[외경실재론자가 반박한다.] 만약, 꿈 중에 식이 허망한 것을 대상으로 하듯이, [꿈에서 깬] 명료한 자에게서도 그렇다면[허망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꿈 중의 대상과] 같이 그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꿈 중에서도 같이, 모든 대상의 인식이 대상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48)</sup>

이어서는 계승과 자주는, 인식적 조건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의 기술이, 깨어난 이후에 비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힌다. 이 풀이는, 꿈꾸는 자와 꿈에서 깨어난 자의 차이를 묻는 외경실재론자의 질문에 대해, 꿈에 대한 비유적 층위에서 세간 사람들이 잠든 상태라고 답하는 것이다. 세친의 관점에서 외부 대상을 끊임없이 상정하는 외경실재론자의 질문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꿈과 지각의 차이가 안과 밖의 비교에 의해서 가능하듯 세간과 출세간의 비유도 결국 출세간의 경험에 의해서 두 경험의 비교가 가능하다.

[세친이 말한다.] 그 일은 논거[能証]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나지 않는 자는 꿈 중에 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하지 않는다.(제17cd송)

그렇게, 허위의 분별(vitathavikalpā)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혼숙되어 수면에 빠져든 세상 사람들은, 꿈속에서와 동일하게 [진실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혼숙을 대치하는 출세간(出世間)의 무분별지를 획득함으로써 깨어난 자가 될 때, 저 [무분별지] 후에

48) Viṃś. p.9. yadi yathā svapne vijñptir-abhūtārtha-viṣayā thatā jāgrato 'pi syāt tarthaiva tadabhavaṃ lokah svayamavagacchet/ na caivambhavati/ tasmān na svapna ivārthopalabdhiḥ sarvā nirarthikam/

얻는 청정한 세간지(世間智)가 현전함으로써,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이상의 것은 [꿈의 경우와] 동일하다.<sup>49)</sup>

세친은 허위의 분별(vitatha-vikalpa)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혼숙되어 잠에 빠졌기 때문에 세간의 사람들이 진실에 깨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원자와 같은 대상을 이해할 때, 지금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며, 그 대상에 설명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엄밀히 따져보면 대상의 관찰된 상태와 그 설명(말) 사이에는 실제로 유사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꿈의 비유를 통해 진실에 깨어있지 않은 세간 사람들의 상태로 설명된다. 꿈의 비유는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문증의 비유와 동일하다.

인식작용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함께 존재하고 협동하는 방식이다. 인식의 객관적 토대로서 외부 세계는 없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을 쫓아 개념을 사용한다. 개념은 경험적 타당성의 근원적 토대가 되고 명제는 행위된 바로서 실재가 된다. 재귀적으로 실재란 우리 경험을 지시하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우리는 개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리적 공간’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유식무경은 인식의 닫힌 작동을 함의하면서 언어를 통해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일깨우는 중지다. 만약에 유식무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재하는 세계에 몰입하여 지금 어떤 세계를 함께 지어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식’은 하나의 경고다.

---

49) Viṃś. p.9. idam ajñāpakam/ yasāt/

svapnadr̥gviṣayābhāvaṃ nāprabuddho `vagacchati//[17cd] evaṃ vitathavikalpābhyāsavāsanānidrayā prasupto lokaḥ svapna ivābhūtamārthaṃ paśyan na prabuddhastadabhāvaṃ yathāvannāvagacchati/ yadā tu tatpratipakṣalokottaranirvikalpajñāna ābhātprabuddho bhavati tadā tatpr̥ṣṭalabdhaśuddha laukikajñāna saṃmukhībhāvadviṣayābhāvaṃ yathā vadavagacchātīti samānam etat//

## V. 결어

이 글은 스페리의 개구리 연구에서 은폐된 이원적 세계관에 대한 마뚜라나의 해명을 검토함으로써 『유식이십론』의 유식 논증을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다. 외경실재론자와의 대론에서 유식무경의 주장은 그들에게 신뢰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을 드러낸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외재하는 실재의 문제를 폐기함으로써만 인식을 자신의 작동적 행위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외경을 논파하는 세친의 논증은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로서 세계를 눈앞에 꺼내놓는 인간의 인식활동 자체를 유식에 의해서만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마뚜라나의 해명을 통해 유식무경의 논의를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1) 유식(唯識)은 인식작용에 의해서만 대상이 망상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그 방식에 준거하는 용어다. (2) 唯識의 唯는 인식작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차단하면서, 기술활동을 포함하는 인식활동이, 공통의 역사를 통해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심리작용과 상응한다.

외경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세친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1) 장소와 시간의 한정은 다양한 상황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구별과 독립적인 외부의 사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아귀의 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농하를 구별하는 심상속이 있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 심리적으로 공유된 업(業)의 이숙 상태가 눈앞에 현현한다. (3) 또한 외재하는 대상 없이도 신체의 인과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각과 환각 그 자체의 구별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비문증의 비유는, 분별의 작동이 언어적으로 지시관계를 내어놓는 활동을 통해 공존하고 협동하는 우리 삶의 방식이지만, 어떤 대상이 말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대상 인식이 설명을 받드시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 참고문헌

---

### 1. 약호 및 원전자료

- Vimś *Vijñaptimātratāsiddhi: Deux Traités de Vasubandhu: Vimśatikā et Trimśikā.* ed. Sylvain Lévi, Paris: Bibliotheque de l'Ecole des Hautes Etudes, 1925.
- 『唯識二十論』(『大正藏』31), 玄奘 譯.

### 2. 2차자료

#### <단행본류>

- 가즈라 쇼류 외, 『유식과 유가행』, 김성철 외 역, 서울: 씨아이알, 2014.
- 그레고리 베이트슨, 『정신과 자연』, 박지동 역, 서울: 까치, 1990.
- 다케무라 마키오, 『유식의 구조』, 정승석 역, 서울: 민족사, 1989.
- 요코야마 고이츠, 『유식철학』, 묘주 역, 서울: 경서원, 1989.
- 움베르토 마투라나·베른하르트 피르크젠, 『있음에서 함으로』, 서창현 역, 서울: 갈무리, 2004.
- 움베르토 마투라나·프란시스코 바렐라, 『앎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최호영 역, 서울: 갈무리, 2007.
- 윤영호, 『불교의 원자설』, 서울: 씨아이알, 2015.
- 이규완, 『세친의 극미론』, 서울: 씨아이알, 2018.
- 이득재 외, 『오토포이에시스와 통섭』, 서울: 씨네스트, 2010.
- 이지수, 『인도불교철학의 원전적 연구』, 서울: 여래, 2014.
- 프란시스코 바렐라·에반 톱슨·엘리노어 로쉬, 『몸의 인지과학: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석봉래 역, 서울: 김영사, 2013.
- 효도 가즈오, 『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다』, 김명우 역, 서울: 예문서원, 2011.
- 히라카와 아키라 외, 『유식사상』, 이만 역, 서울: 경서원, 1993.
- 釋惠敏, 『『声聞地』における所縁の研究』, 東京: インド学仏教学叢書, 1994.
- 宇井伯壽, 『四譯對照 唯識二十論研究』, 東京: 岩波書店, 1953.
- 佐佐木月樵·山口 益, 『唯識二十論の對譯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7.



- Magnus Ramage and Karen Shipp, *Systems Thinkers*, London: Springer, 2009.
- Jonathan A. Silk, *Materials Toward the Study of Vasubandhu's Viṃśikā (I): Sanskrit and Tibetan Critical Editions of the Verses and Autocommentary; An English Translation and Annot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South Asian Studies, 2018.

### 〈논문류〉

- 김성옥, 「“kesa: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 비유에 관한 고찰」, 『인도철학』 Vol.29, 서울: 인도철학회, 2010, pp.329-350.
- Albert Einstein, “Einstein on Locality and Separability”, trans. D. Howard,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Vol.16, No.3, Amsterdam: Elsevier, 1985, pp.187-188.
- Brigit Kellner and John Taber, “Studies in Yogācāra-Vijñānavāda idealism I: The interpretation of Vasubandhu's Viṃśikā”, *Asiatische Studien-Études Asiatiques* Vol.68 No.3, Bern: Verlag Peter Lang, 2014, pp.709-756.
- C. L. Méndez, F. Coddou and H. R. Maturana, “The bringing forth of pathology”, *Irish Journal of Psychology* Vol.9 No.1, Dublin: Psychological Society of Ireland, 1988, pp.144-172.  
<https://doi.org/10.1080/03033910.1988.10557711> (확인 12.29.2019)
- Ferenc Ruzsa and Mónika Szegedi, “Vasubandhu's Viṃśikā”, *Távol-keleti Tanulmányok* Vol.1, Budapest: Távol-Keleti Intézet, 2015, pp.127-158.
- Humberto R. Maturana,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virtual realit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human existence”, *Constructivist Foundations* Vol.3. No.2, Vienna: University of Vienna, 2008, pp.109-114.
- \_\_\_\_\_, “The nature of time”, *Chilean School of Biology of Cognition*, Santiago: Instituto de Terapia Cognitiva, 1995, pp.1-5.
- \_\_\_\_\_, “Ontology of observing: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self consciousness and the physical domain of existence”, *Conference workbook: Texts in cybernetics* Vol.1, Felton, CA: American Society for Cybernetics Conference, 1988, pp.1-41.

- \_\_\_\_\_, “What is it to see?”,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Vol.16 No.3-4, 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83, pp.255-269.
- \_\_\_\_\_, “Biology of language: The epistemology of reality”, eds. G. Miller and E. Lenneberg, *Psychology and biology of language and thought: Essays in honor of Eric Lenneberg*,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pp.27-63.
- \_\_\_\_\_, “Neurophysiology of cognition”, ed. P. L. Garvin, *Cognition: A multiple view*, New York: Spartan Books, 1970, pp.3-23.
- Humberto R. Maturana, G. Uribe and S. Frenk, “A biological theory of relativistic colour coding in the primate retina: A discussion of nervous system closure with reference to certain visual effects”,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No.1, 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68, pp.1-30.
- Humberto R. Maturana and J. Mpodozis, “Perception: behavioral configuration of the object”, *Archivos de Biología y Medicina Experimentales* Vol.20 No.3-4, Santiago: Sociedad de Biología de Chile, 1987, pp.319-324.
- Humberto R. Maturana and S. Frenk, “Directional Movement and Horizontal Edge Detectors in the Pigeon Retina”, *Science* No.142 Issue3594,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63, pp.977-979.
- Humberto R. Maturana and X. Y. Dávila, “Systemic and meta-systemic laws”, *Interactions* Vol.20. No.3, New York, NY: ACM Publications, 2013, pp.76-79.
- L. S. Stone, N. T. Ussher and D. N. Beers, “Reimplantation and transplantation of larval eyes in the salamander (*Amblystoma punctatum*)”,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Vol.77 No.1, Hoboken, NJ: Wiley-Blackwell, 1937, pp.13-48.
- R. L. Meyer, “Roger Sperry and his chemoaffinity hypothesis”, *Neuropsychologia* Vol.36 No.10, Amsterdam: Elsevier, 1998, pp.957-980.
- Roger W. Sperry, “Effect of 180 Degree Rotation of the Retinal Field on Visuomotor Coordin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Zoology* Vol.92 No.3, Hoboken, NJ: Wiley-Blackwell, 1943, pp.263-279.

## An Interpretation of ‘*Vijñapti-mātra* (cognitive closure)’ of *Vimśatikā*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cience

Chung, Hyun-Joo  
Honam Center for Buddhist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spouse the significance of ‘*vijñapti-mātra*’ (唯識無境) of the *Vimśatikā* as a cognitive closure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cience, in light of Maturana’s critical analysis of the dualist view hidden in Sperry’s frog experiment. To do this, I examine the first objection in *Vimśatikā* and show that it shares the same sort of the dualism involved in Sperry’s study. Drawing on Maturana’s account of this dualism, I present the assertion of “the triple world is mind only” (三界唯心), Vasubandhu’s account of four things (四事), and the implications of *taimira* (*muscae volitantes*). I argue that *vijñapti-mātra* is a term that complies with the way in which this cognition itself arises, having the appearance of objects similarly as if they were external independent of the cognitive function.

The word ‘*mātra*’ is stated to rule out the external objects (*arthapratiśedhārtham*) only, but clarifies that cognition corresponds to the psychological concomitants (*caittas*). All existence entails this cognition in the use of language, as a basic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function formed by the recurrent experiences of the members through their socio-cultural history. Vasubandhu’s explanation for the objection-restrictio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① Restriction as to time and place can be enacted by comparing differences between situations, not by external objects. ② In regard to the nonrestriction to personal mind continuum; there is a

personal mind continuum identifying the river of pus for the man who carries karma of hungry ghost, and the fruition of actions of psychologically shared karma along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recurrence of experience appears to the eyes. ③ Causal efficacy itself is not distinguishable between perception and hallucination, since causal efficacy may arise even without the external objects. The analogy of *taimira* implies that one hardly realizes the way cognition of the object must include an explanation of it.

#### Keywords

*vijñapti-mātra*, the analogy of *taimira*, H. Maturana, cognitive closure, Sperry's frog experiments, the ontology of observer, dualism, indistinguishability between perception and hallucination

2019년 11월 11일 투고  
2019년 12월 29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16일 게재확정